

미항 여수에 올려퍼진 세계의 화음

8개국 68개팀 참가 여수세계합창제 폐막...市, 연례화 방안 검토

국내 최대 규모의 참가인원이 최고 역수의 상급을 놓고 벌인 '2013 여수세계합창제'가 17일 폐막했다. 여수시는 세계 8개국 68개팀, 2216명 합창단원이 참여한 여수세계합창제가 세계박람회 도시 여수를 알리고, 부수적인 효과도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2013 여수세계합창제에 미국, 러시아,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등 세계 6개국에서 16개 팀이 참가하는 등 여수를 국제적으로 크게 알렸다. 그랑프리 5000만원, 금상 6개팀 각각 1000만원, 은상 7개팀 각각 500만원 등으로 총상금 액수가 1억4500만원에 달해 국내 유명 합창단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항공비와 체제비를 감수하고 여수를 찾았다.

또 '바다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주제로 예술마루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하루 평균 900명의 관광객들이 예술마루 대극장을 가득채우는 등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다.

이날 오후 축제 마지막날 폐막식에 앞서 열린 혼성합창 경연, 그랑프리 경연, 프린지 콘서트 등 지역에서 접할 수 없는 수준높은 무대가 지난 11일부터 7일간 계속됐기 때문이다.

합창제 기간 중 경연 및 그랑프리에 참가해 금상을 차지한 팀 가

운데 그랑프리가 정해졌으며, 뒤이어 열린 폐막식에는 지난 7일간 대극장의 종지부를 찍으며, 앵콜공연과 전 세계 합창단이 하나가 돼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이어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경연과 축제로 나눠 열린 이번 합창제는 참가팀들이 우열을 떠나 소통과 교류, 그리고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큰 열매를 맺었다"며 "특히 대미를 장식하는 폐막식에서 참가팀과 더불어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감동 깊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17일 오후 2013 여수세계합창제에 참가한 한 합창단이 여수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다.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정원박람회 개최 '생태수도' 기틀

순천시

민선 5기 순천시는 두명의 시장이 이끌어 왔다. 전반기를 노관규 전 시장이 책임졌다면 후반기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바통을 이어받은 현 조충훈(사진) 시장이 이끌고 있다.

민선 5기 순천시의 가장 큰 성과는 뉘뉘뉘뉘해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다. 노 전 시장이 유치를 통해 기반을 닦았다면 조 시장이 수확을 거두는 형세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 세계 5대 습지인 순천만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인공적인 정원박람회를 더해 국민들에게 순천을 대한민국의 생태 중심이라는 인식을 심은 것이 가장 큰 성과다. 특히 정원박람회는 산업박람회와 달리 사후에 활용도가 더 높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순천시가 2020년 완성을 목표로 생태수도 순천의 마스터플랜을 정원박람회를 기본 틀로 짰 것도 이런 연유다. 순천시는 서부지역은 오감체험권역, 북부는 자연치유권



선진 도서관시스템 구축

소통·참여행정 큰 호응

역, 남부를 생태환경권역으로 나눠 삼각축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4월 20일 정원박람회 개막이후 현재까지 2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불러들여 남은 4개월동안 목표인 400만명 유치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최고수준의 평생학습도시 실현도 성과로 꼽을 만 하다. 10년 전부터 평생학습도시를 목표로 전

국 최고 수준의 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유아기부터 책과 도서관에 친해질 수 있도록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전국 최초로 생태학습 박람회를 개최했다.

조 시장의 소통과 참여행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무기계약직에 호봉제를 도입해 소통의 폭을 넓힌데 이어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운영으로 시민과의 공감대 확산에도 나섰다.

하지만 조 시장이 안아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목표 관광객 돌파에도 시민(상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속빈 박람회가 될 경우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는 조 시장이 박람회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과도 맞물려 있는 대목이다.

정원박람회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던 PRT(무인궤도차) 운영을 놓고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가 결국 전면 보류했던 점에서 알수 있듯이 박람회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강진군-광주 남구 '문화공예클러스터' 협약

청자·공예산업 공동육성

강진군이 광주 남구와 함께 고려청자와 공예산업을 공동 육성하기로 했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남구청 상황실에서 강진원 강진군수와 최영호 남구청장, 광주디자인센터 장상근 원장(사진 왼쪽부터)이 만나 '강-남 문화공예클러스터 연계 활성화사업'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진군과 남구의 연계 협력사업단 구성 및 운영과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공동 발굴과 공동 수행 등이다.

또 지역 특산물 유통망 구축 및 판로지원, 관광·축제·문화 분야의 협력 강화, 일자리창출, 양 지역 간 인적교류 등이 포함됐다.

강진군과 광주 남구, 광주디자인센터 등은 이날 협약 체결을 계기로 각



기관이 보유한 전통 자산과 역량을 활용해 공동사업을 본격화하고 지역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 양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강진군과 남구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은 광주디자인센터는 강진 청자산업과 남구 공예문화산업의 연계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목표로 '강-남 연계 협력사업단'을 구성하고 2년간 총 18

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양 지자체 간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청자를 미래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자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광주 남구, 광주디자인센터와 협력을 발판으로 청자산업의 육성과 세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전남농기원 개발 골드키위 '해금'

묘목 생산·상표사용권 민간 이양

전남도가 자체 개발한 골드키위 '해금'의 묘목생산과 보급이 민간에 넘겨졌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17일 "국립종자원에 보호품종으로 등록된 골드키위 해금에 대한 묘목 생산과 보급, 상표사용권을 민간단체인 해금골드키위영농조합법인에 유상 이양했다"고 밝혔다.

골드키위를 직접 재배하는 120여 농가가 모여 법인을 조직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 고품질 과실생산과 유통책임이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보다 우수한 품질의 과실 생산으로 이어질 것으로도 농기원은 기대했다.

아울러 신품종의 산업화를 생산자들이 직접 주도하게 돼 전남농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

영산강 황포돛배 1척 추가 건조

전남도, 운항노선 연장·나룻터 2곳도 추가 조성

영산강 위를 유유히 떠가는 황포돛배가 추가 건조된다.

전남도는 17일 "최근 영산강 황포돛배 이용객이 늘어 예산 7억원을 들여 1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과거 영산강 일대에서 곡물과 화물을 실어 나르던 황포돛배는 지난 2008년 5월, 11인승 2척과 96인승(왕건호) 1척 등 모두 3척이 건조돼 나주 영산포 등대~다시면을 오가며 관광객을 태우고 있다. 지난해에만 1만 8000여명이 이 배를 타고 영산강의 빼어난 풍경을 즐겼다.

또 지난 2010년에는 목포에서도 황

포돛배 1척(49인승)이 건조돼 옥암동 수변공원~무영대교를 오가고 있으며 지난해 5000여명의 관광객이 탑승했다.

전남도는 승촌보 오토캠핑장과 죽산보 수변공원, 혁신도시 조성으로 황포돛배 이용객이 더욱 늘 것으로 보고 60t급 100인승 배를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현재 승촌보 방문객은 연 34만명으로 추정되며, 주말에는 8000여명이 찾고 있다.

또 기존 운항노선을 연장하고, 영산강변에 나룻터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나룻터 별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ah@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지하 수영장 3.3㎡ 당 80만원
볼링장, 골프장 3.3㎡ 당 150만원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